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리화
아름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장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크리스마스 메시지 ❶(금요일전)

광명한 새벽 별 (요 8:12)

그 날에 찬란하던 동산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속이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순진한 이브를 향하여 부드럽게 유혹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창 3:1).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른 것은 모두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답한다. 그러나 간교한 뱀은 이브의 대답을 모하게 바꾸어 거짓으로 축복을 예언한다(창 3:4,5). 속이는 자의 거짓 예언은 이브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다(창 3:6). 사단의 간사한 유혹으로 이브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욕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작용되고 있다. 유혹은 겉으로는 좋게 보이므로 우리 역시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어두움은 우리 위에 덮이게 된다. 더 이상 밝을 밝히 내다볼 수가 없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내면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된다. 이브는 그녀의 행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이브는 이것을 감당하였다. 그 결과는 이브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창 3: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대가 기다려야 할 그 사건을 선포하여 주셨다. 한 별이 나올 것이다(단 12:17). 흑이 되시는 구원자, 메시야가 되시는 그 별, 우리의 어두움을 벗겨 주실 그분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새벽 별과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환하게 비추 주신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브가 에덴동산을 떠날 때에 그녀가 자신의 갈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 그녀가 안 것은 오직 그 자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 에덴동산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서 이 작은 지구에 특별한 인을 찍으셨다. 물과 땅,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셨다. 아담과 이브는 본래 하나님께 나 구별하여 나뉜 것이었다. 나뉘어짐으로부터 아담과 이브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브가 에덴을 떠날 때에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단가? 자신을 위로해 주며 인생의 험한 여정을 같이 할 자가 곁에 있는 것이다. 비록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홀로 거할 수 없는 연합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를 놓고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을까? 이브가 또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 이 위로자는 참으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이브의 자손과 사단은 영원토록 대적한다(창 3:20). 그러므로 인류의 발뒤꿈치를 무는,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성경은 어두움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씀으로 기록 차 있다(창 9:2 ; 말 4:2). 어두움을 몰아낼 그 별이 하늘에서 불처럼 광명을 발할 것이다(요 1:3). 이 빛은 아담과 이브에게도 비추었으며 저들이 비록 어두움에 빠져들어 갔을 때에도 비추어졌다(요 1:4).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언급한다(요 1:5). 이브의 어둠 속뿐만 아니라 나의 어둠 속에도 마찬가지다. 어두움에 처하여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다(요 8:12). 이브에게 주신 약속은 에두살렘 안에서 그 어느 날 이루어졌다. 사단의 온갖 술수 속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이들은 예언의 나머지 부분을 잊었던 것이다. 그 빛이 무너뜨린 것은 죽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죽을 그 자체인 것이었다. 부활의 아침, 무덤에서부터 빛이 터져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죽음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다(고전 15:55).

아침 새벽 별은 솟아났다. 빛이 오셨다. 때문 이 빛 자체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감추어진 어두움을 발견하게 된다. 영적인 깊은 심령 속까지 쫓고 들어오신다. 믿는 자들은 이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눈을 감아 있다. 이 새벽 별은 구약 전체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살아 계신다(베후 1:19).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니(골 2:15,16). 그 때에 생명의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 밝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삶,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다 지나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저들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우리들도 역시 전하여야 한다.

생명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뒤에 남겨두고 "다시 밤이 없었고 동물과 햇빛이 쓸 데 없는"(계 22:5) 영원한 성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빛은 광명한 새벽 별이시며, 곧 뱀의 머리를 꿰뚫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며 어떠한 어두움도 그에게는 없다. 이곳에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가나셨다. 뱀의 속임수로 인한 어두움의 그림자는 덮여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그날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되니라"(계 22:16).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교역자·장로·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시무장로 직무 교육
9월 17일(오늘) ~ 10월 8일(주일)

9월 19일(화요일), 저녁 7:30
갈릴리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기도는 자등 관매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금식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신자의 호흡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행 8:22).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살전 5:17) 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골 1:3)가 넘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마 6:33).

바로 지금이 기도의 때입니다(베후 4:7). 이에 교회의 중직자들인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가 금주 화요일(19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믿음을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딤후 1:5).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외에 순종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마 26:39).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근신하여 무릎 꿇고,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17일)부터 10월 8일(주일)까지 4주에 걸쳐 시무장로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시무장로님들의 영적인 면과 교회의 행정 지침에 대한 직무 교육의 시간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시무장로님들은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딤후 2:2)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행 8:22).

Sermon for Next Sunday

ESTHER'S LIFE

⁽⁷⁾Mordecai told him all that had happened to him, and the exact amount of money that Haman had promised to pay to the king's treasuries for the destruction of the Jews. ... ⁽¹⁵⁾ Then Esther told them to reply to Mordecai, ⁽¹⁶⁾ "Go, assemble all the Jews who are found in Susa, and fast for me; do not eat or drink for three days, night or day. I and my maidens also will fast in the same way. And thus I will go in to the king,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Esther 4:7-16)

The Book of Esther is a precious story about a young Jewish woman who sacrifices her well-being for the life of her people. After the proclamation from King Ahasuerus had gone into all the provinces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the Jews on a certain date, the government, its people and culture turned against the Jews with extreme hate. One little woman's life, who no one knew before her rise to becoming queen, made a powerful difference. Her name was Esther, which means star, and her pure and wonderful heart truly shined as bright as a star in the midst of terrible darkness. This beautiful story is an actual historical event that took place around 474 B.C. a time of recovery for God's people. They were renewing their faith and love in the Lord and reviving their sacrifice and worship to Him. Esther's story shows God's sovereignty over all events and His blessings of victory to all His people.

God chooses all kinds of different leaders to accomplish His plan of salvation. During the fulfillment of His promise to restore Israel to her land, after their 70 years of captivity in Babylon, He used Persian kings as well as Jewish leaders such as Zerubbabel, Joshua, Haggai, Zechariah, Ezra, and Nehemiah. Among these men, there was only one Jewish woman noted whom God used, and her name was Esther. When you look at Esther's life, you can see how wonderful a life it was.

God used Esther's own pure sacrifice for His kingdom. She was in a very, very difficult situation when God called upon her to help His people. A decree, designed by an evil man named Haman, and authorized by King Ahasuerus, was sent out to kill all Jews. God's people were in great danger. Mordecai, Esther's cousin, was a real believer. He prayed for God's wisdom in this wicked and tricky persecution. He had raised Esther from childhood because her parents had died. When the king began looking for a new wife, Esther's character and beauty caught his attention, and she became the Queen of Persia. God used her at that time. After becoming queen, Mordecai came to her with the request for loyalty, love, and sacrifice. She could have simply turned around, ignored the Jews, and enjoyed her royal life, but God gave her a responsibility. God wanted to use her to save His people.

The worst situation became a blessing situation. This blessing was not just one of victory, but one of glory! In the most dangerous of positions, God gives believers encouragement. He always uses one of His own true servants. Esther's situation is not that different from today. So many pastors, churches, and seminaries have such intense fighting, jealousy, and hate. It seems that everyone is trying to destroy God's people. It is hard to find real believers, but God is on the side of the real church. This earth really needs real churches with character, like Esther. The church needs to lead, direct, and help now because it is God's time, just as it was Esther's time.

Esther viewed her situation's strong and weak points. She told Mordecai, "Go, assemble all the Jews who are found in Susa, and fast for me; do not eat or drink for three days, night or day. I and my maidens also will fast in the same way" (v. 16). She depended on God for help, and dedicated herself to receiving that help. God wants to use every single believer for His work, and every single believer has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Her situation was very dangerous, "And thus I will go in to the king,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v. 16). Her people's situation was dangerous. "Mordecai told him all that had happened to him, and the exact amount of money that Haman had promised to pay to the king's treasuries for the destruction of the Jews" (v. 7). This dangerous time was also the best time. Right now, there are many people starving

and dying. It is a terrible situation. The voice of the Lord is calling out.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Is. 6:8). Isaiah responded, "Here am I. Send me" (Is. 6:8)! God is now asking us for help. The sad thing is that too many of us do not want to sacrifice our royal living. The church and its believers have to listen to God's voice. God wants to use your hands, feet, and mind. The world needs to hear the Gospel. We need Esther's faith to say, "if I perish, I perish."

Now is the time when God's glorious power is in full force because of the danger. We should not be discouraged,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Heb. 13:8). This is miracle time, God's powerful time. This is the time for excitement and action, "Now to Him who is able to for more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Eph. 3:20). In your weakness, God's power bursts forth. God says,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Jer. 33:3). Why be depressed when such wonderment is yours? There is not much time. The harvest is ready now, and only seconds left to do the work. God will give you His Holy Spirit, "It will come about after this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mankind; and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Joel 2:28). God is doing exactly this right now. The Spirit is here and Jesus is ready to get involved in every single little thing you do.

My dear friend, the time is short, not long, for God to use you. You have to act now. Haman is ready to kill, "Have a gallows fifty cubits high made and in the morning ask the king to have Mordecai hanged on it" (Esther 5:14). Please do not delay, for the devil has already planned for tomorrow morning, and Jesus' return is rapidly approaching.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quickly.' Amen. Come. Lord Jesus" (Rev. 22:20). John 9:4 says,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as long as it is day;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The time is short, but it is also the best of times. You have the greatest opportunity now. If you delay, you will regret it forever.

Jesus asks His disciple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9&20). Have you done mission work? God gives you all kinds of opportunities, but you keep working on your own stuff. When He asks you to follow His command, you always refuse because you are caught up in the world. Listen to Jesus' last words to His disciple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Are you His witness? Jesus said, "Behold,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will injure you" (Lk. 10:19). Look how much God gives to you! How can you possibly place other things above what He asks of you?

Mordecai told Esther,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will arise for the Jews from another place and you and your father's house will perish. And who knows whether you have not attained royalty for such a time as this" (v. 14)? As a Christian,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will arise for God's people from another place, and God's judgment will fall upon you. You have attained royalty for such a time as this! Esther had a wonderful life, and I hope your life will be wonderful too. Amen. 卐

다을 주일 설교

에스더의 삶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7~16)



김성편 목사

에스더서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을 희생한 젊은 유대 여인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한 날을 정하여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는 아하수세로 왕의 조사가 모든 지역에 전달된 후, 바사국 정부와 백성들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왕후로 등극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연약한 여인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그녀의 순고한 마음은 감당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B.C. 474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있었고 회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사 왕들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예루살렘, 학개, 스기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일한 유대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에스더 자신의 온전한 회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더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대적 하만이 고안한 조사가 아하수세로 왕의 인정을 받아 전역에 전달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악하고 교활한 백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읜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아왔습니다. 왕이 새 왕 비감을 구하고 있했을 때 에스더의 성품과 아름다움은 왕의 관심을 끌었고 마침내 에스더는 바사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때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를 찾았을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충절과 인애, 회생을 요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고 돌아서서 우리 민족들을 무시한 채 왕국으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축복으로

최악의 상황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수리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영광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참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 세미나에서 지독한 싸움과 질투와 증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참 신자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 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은 에스더와 같은 신자들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자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시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16절). 에스더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저마다 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16절). 그녀의 민족 역시 위험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7절). 위기는 또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 아시아가 대당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참으로 슬픈 일은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화로움 삶을 희생하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 마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전세계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령으로

지금은 위험한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런 권능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지금은 기적의 시대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믿음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렘 3:20).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분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말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뜻과 왜 낙심하시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추후를 매듭입니다. 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욥 2:28).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정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기에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십 규빗이 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에 5:14). 데발 미루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내일 아침 계획까지 세워놓았고 예수님의 재판을 임박해 이미 때론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요한복음 9:4에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면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뒤로 미룬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여러분은 복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잊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따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 하시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 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데발미야 놀림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가 저 비는 멸망당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14절). 그리스도인으로 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데발미야 놀림과 구원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러한 때를 위해서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초대 교회의 전도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 교회의 전도는 오직 이 말씀에 기초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증인으로서 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없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을 뿐이다(눅 24:49).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거만하 않아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신의 준비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이처럼 초대 교인들은 오직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전도는 어떠한가?

이들의 전도는 인간이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딤후 2:5). 우리가 전해야 할 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역사와 여러 종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행 2:22).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기 때문이다(요 6:40).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일에 증인은 바로 우리이다(행 2:32,33; 행 3:15).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행 2:36).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행 4:10). 이처럼 초대 교회의 전도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행 8:5).

이들의 전도는 메시지가 분명하였다. 초대 교회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행 4:13; 마 11:25). 전도의 메시지에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없었다(고전 1:21). 우리의 경험과 학식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흐리게 한다. 베드로를 보라. 그는 어부의 생활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신앙을 경험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고 기적까지 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매순간마다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렸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공로와 정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군병이어야 한다(골후 2:4).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행 5:42).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행 8:4).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며 생명이요, 십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찾을 수 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다(히

4:12; 사 40:8; 마 24:35).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전할 전도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들의 전도에는 기적과 기사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적과 기사가 있었다. “빌기를 다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기적이 현혹되지 말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 앞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였다(행 16:26). 베드로는 다비다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한 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기적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으라고 하지 말라.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기적과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전도에는 성령님이 주관했다. 초대 교회의 전도는 사도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주관하셨기에 모진 압박 속에서도 전도는 계속되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기에 관원과 장로들에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행 4:8).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돌에 맞는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행 7:55). 이처럼 초대 교회의 전도는 인간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뿐이다.

이들의 전도에는 열매가 있었다.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열매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행 2:41).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열매가 있었다(행 5:14). 초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행 11:26).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처럼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

초대 교회의 전도 중심에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들이 전한 전도의 메시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럴 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눅 18:8).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 오직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며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라! “주 은총 안에 종들이 주 앞에 엎드립시다. 주 말씀 능력 있으시니 그 성령 감을 가지고 주 위해 바나 싸울 때 나 승리하겠네!”(산 25:43). 아멘.

새가족부 수료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



♥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송현선)

♥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큰 기쁨이 저 안에 생겼습니다. 특히 말씀과 찬양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조영은)

♥ 예수님은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는 신분이신 것 같아 되었습니다. (조재원)

♥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순옥)

♥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백경래)

♥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회개하며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김성애)

♥ 예수님은 참 구주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고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저 안에 넘칩니다. (조한자)

♥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숙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기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정진부)

♥ 주님은 제가 한가운데 있을 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한탄 속에서는 사랑을 더하기가 더 쉽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김수영)

♥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불규칙적이고 방탕한 행동들을 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마음에 참 안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철수)

♥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던 저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안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수정)

♥ 예수님은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끼시고 보살피는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최영실)

♥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모든 생명이 즐겁습니다. (황용필)

♥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진짜로 주십니다. (김성애)

♥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임현수)

♥ 처음에는 약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 나와서 마음을 들고 찬양하는 시간이 저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한병구)

♥ 40년 인생, 처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정필)

♥ 죄 많은 저를 사람으로 감화 안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살아 깨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차지영)

♥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김영숙)

(정리: 편집실)

복음의 정결한 통로

선교 가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의 마음은 초조했고 신령이 날카로워지기 까지 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점점 복음의 전도자로 다듬어졌다. 주님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셨다. 결국 주님은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공원과 대로변에서 시골 마을 축회 전도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30% 이상이 우리의 복음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낙담하는 마음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때 휠체어에 40대 아들을 태우고 나온 노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411장 찬송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 드리고 나니 오랜 투병 생활을 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안 것 같더라 기뻐하였다.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였지만 말문이 트일 때 “예수” 그 말 먼저 나오길 간절히 기도했다.

마지막 날 오전, 하염없이 내리는 비도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 상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다. 쓰레기봉에 버려진 전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하였다. 우리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성령님께서 역사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점숙(집사, 10교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

선교가 자유롭지 못함을 잘 아는 우리는 주위의 눈치를 봐 가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인가집이 거의 없었고 한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 할머니는 끝까지 들으셨고 마지막 영접 기도문이 끝난 뒤에는 “아멘”까지 따라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우리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한 목동에게 전도했을 때, 그 목동은 우리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었으며 주머니에서 신약성경을 꺼내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옥수수 밭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집 마당에서 공부하는 중학생 소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유아원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눈에는 금방 먼지와 모래가 들어가 눈물이 흐르고 강렬한 햇빛에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어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매순간 기쁨에 넘쳤습니다.

문석관(집사, 4교구)

성령님의 인도로 만난 영혼들

선교지의 젊은이들은 일찍 결혼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정 불화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낮에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노인들은 자식을 떠나보내고 외롭게 사는 이가 많았다. 마약에 취한 사람도 있었으며 남자들은 상의를 거의 입고 있지 않아서 여자들이 우리가 사역하기에는 인망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모든 상황이 열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혼당한 한 여인과 68세 된 아저씨, 전도지를 받자마자 자기는 죄인이라며 울던 여인, 아이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렸다. 30대 중반의 한 여인은 남편이 40일 전에 자살했는데 밤마다 꿈에 나타나 얘기한다고 피로워서 술을 먹는다고 했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가정의 개꿈케 되길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 여인은 술을 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기를 약속하고 우리와 헤어졌다.

이처럼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우리는 선교지를 떠나왔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희선(집사, 5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9일(화) ~ 9월 28일(목)	16교구 7지역	이상범
9월 20일(수) ~ 9월 27일(수)	6교구 5지역	이세영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4일(목) ~ 9월 22일(금)	4교구 3지역	채홍표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4일(월) ~ 9월 12일(화)	1교구 8지역	김용조
9월 4일(월) ~ 9월 13일(수)	4교구 4지역	박원화
9월 5일(화) ~ 9월 14일(목)	10교구 3지역	김영록
9월 6일(수) ~ 9월 13일(수)	14교구 5지역	공석생
9월 6일(수) ~ 9월 14일(목)	7교구 4지역	정길남
9월 6일(수) ~ 9월 14일(목)	8교구 3지역	김해길
9월 6일(수) ~ 9월 14일(목)	17교구 3지역	이호일
9월 7일(목) ~ 9월 15일(금)	장년2부 1팀	권 철



금요일집회로 부흥하는 우리 구역

활동 1구역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신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는 모두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집회 때는 열 명이 됩니다. 바로 아이들 때문이지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모습을 보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린이들이라 할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도 전에는 두 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
다. 어른인 저로서도 적응이 안 되어 온몸을 비틀고 움
직이고 싶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
까?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는 고개를 틀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예배드리
는 자세를 길러 주
고 아이들은 엄마
의 말씀에 순종
하면서 항상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 정말 기
뻐하실 거라
고 믿습니다.
“거룩한 성”을
부르며 “할렐
루야”를 따라하
는 아이들의 맑고
우렁찬 찬양 소리가
자주 귓가에서 맴돕니
다. 천국의 찬양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김복현(집사, 2교구)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성도는 누구나 주님의 새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소망한다. 성경 속의 하
나님의 종들, 다윗이나 모세, 욥처럼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누구
구신지 바로 알고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면
목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
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삼상 3:21).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6).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님을 섬기기 위해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
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 불안, 초조 등으로 갈장질병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
는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에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맛본다.
나도 욥처럼 일용할 양식이라 말씀이 더 소중한다고 고백하길 원한다(욥 23:12). 회개 기도를 하면서 “너희
죄가 주를 갈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과 나 사이의 ‘죄’의 벽이 무너짐도 체
험한다. 말씀은 하나님이기(요 1:1)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기회 있을 때마
다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처럼 깊이 새겨진 말씀은 나의 죄인 됨을 깨닫게 하고 시
오로 찬미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나를 다듬어 가셨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정순(집사, 13교구)

나를 훈련하시는 예수님

결혼 후 아이를 키우느라 예배만 드리던 어느 날 ‘전도회’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곳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일 년여의 시간을 미룬 끝에 전도회에 나
가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은 구역의 또래 엄마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같은
고민을 같은 시각에서 보게 되어 서로간에 도움이 되었다. 처음엔 천교의 의미가 컸
지만 점점 믿는 자의 사명인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의 발걸음은 교회 주변 전도
로 이어졌다.

내가 전도회장을 맡게 된 때였다. 부족한 나에게 너무도 큰 책임이 맡겨져 걱정이
있었다. 모임이 많아지고 참석해야 할 곳도 갑자기 늘어났다. 그 모든 모임에 참석한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
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겨났고, 오히려 분주함을 감사하게 생각
하였다. 교회 주변 전도로 활동한 지역에서 전도할 때 처음엔
어색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던 것이 어느 새 “요
번 달에도 또 왔어요?”라며 웃으며 인사할 정도로 바
뀌게 되었다. 많은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 선교를 가본 그곳에서도 기
쁘게 전도를 하던 교회 주변에, 내 주위
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나 쉽게 잊고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그
들을 돌아보게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
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마리아 전도회의 회원들은 아이들
이 어린 탓에 사실 교회까지 와서
주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 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면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에 가야 하고, 또 너무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는 애들을 데리고 오길 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
고 오는 엄마들을 볼 땐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되어 감사하고, 그 아이를 또한 믿음으
로 잘 자라는 듯하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더욱 힘쓰는 마
리아 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젊은 일꾼들로 가득
찬 마리아 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선남(집사, 10교구)

이웃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말장난으로 맞서는 자, 문전 박대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우상과 동질시 취급하는
곳지 못할 여러 가지 형태들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현상에서
나뉘는 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늘

채택해 하셨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
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과 사랑의 대상인 당신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은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함께 큰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대가 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그 또한
일상 생활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거저 나눠 주는 선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구원의 끈을 늦추지 않으시는 그 일에 사용되실 세상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불분하고 일꾼들을 준비하고 보내는 분이시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내 보내지 않아 썩어서 썩어 버리는 바닷길 사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에 는 먼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갈릴리 바다와 같
은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야 한다. 그런 삶이 곧 우리의 귀중한 보배인 예수님을 섬
기는 일이며, 전도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동안 함께 해 주신 주님의 놀라
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충주대헌 일을 위해 여전히 두리를 사용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각별하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황명준(권사, 7교구)

교회 탐방 초·중 도서실

복음으로 준비되는 천국일꾼



제교육관에 7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5월에 문을 연 초·중 도서실이 있는 이곳에는 많은 신앙 서적과 영성 자료를 갖추고 **충현의 천국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어린 천국일꾼들이** 이용하고 있는 **초·중 도서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초·중 도서실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도서실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부모님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주변에서 방황하지 않고 기독교 서적과 영성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심을 얻을 수 있는 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중등 3부 학생들까지,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식 안수집사, 심광)



도서실에는 어떤 도서가 있나요?

기독교 서적을 중심으로 약 1,600권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성경 관련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범익 집사, 도서팀장)

영성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350개 정도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성경인물, 사전, 간증문 등이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를 신앙 중계하고 그 이후는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개혁된 프로그램에 따라 성경 이야기를 생동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성경 비디오를 신청하시면 대여도 가능합니다. (임병익 집사, 미디어팀장)

이용하는 아이들의 반응은?

주일학교가 끝나는 12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주일에 늦게까지 봉사하시는 부모님들을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부모님과 어린이들 모두 아주 좋아합니다. (김종은 안수집사, 부실장)
어떤 아이들은 책을 봐야 할지, 비디오를 봐야 할지 몰라 책을 들고 영성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하영 집사, 부실장)
유치부 아이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성식 안수집사)

도서실에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각 파트의 팀장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 여덟 명이 실용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비롯하여 도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분 등 각 팀장님들은 전문가들이시고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식 안수집사)

봉사를 하신다면

만나미아가 초등학교인데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끝난 후 아빠를 기다리느라 교회 여기 저기에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안심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익 집사)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말씀은?

현재 도서실 책량이 24개, 영성실 책량이 47개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인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자리가 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확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은 안수집사)

현재 중등부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많은 책과 미디어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김하영 집사)

도서실이 교육관 7층에 있어서 오기가 좀 힘들겠지만 한 번 책을 접하고 나면 주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교외 지방까지 감수할 수 있는 전담 좋은 초·중 도서실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김범익 집사)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관련 도서와 영성 자료가 있으면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병익 집사)

6월 동안 학교 공백에 지친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신앙의 재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월 1회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권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식 안수집사)

지난 9월 초, 교회는 초·중 도서실의 확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더욱 좋은 곳에서 어린 천국일꾼들을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중된대로 온전히 준비될 것입니다. 도서관과 미디어실과 성경 영성실 등에서 이들은 더욱 복음 위에 굳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자에게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자에게 있을지어다"(베편 3:18). (편진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23장 만민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은 웨슬러가, 자신의 친구 피터 윌러가 "만일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텐데"라는 말을 듣고 작사한 곡이라고 한다. 곡조는 간단하고 소박한 3/2박자의 곡이지만 담겨 있는 내용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한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네."** 피아니스트인 나는 피아노 연주에서 느끼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찬양할 때, 은혜가 더욱 충만하고 기쁘다. 우리 가족 다섯 명은 모두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딸이 봉사지 각자가 받는 은혜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고, 믿음 위에 굳게 서있는 세 명의 자녀들을 보면서 찬송하는 삶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찬양대에서 주님께 평생도록 찬양하고 싶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우시라"라는 **크리스 영광 벨리 파 다 알레 하소서**, "마강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는 그 날 일에서만 부르던 찬송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위력되도다."** 죄인인 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주 예수님의 귀한 이름이고 찬송으로써 항상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감사한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정결 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은데 죄인이라니... 선교지에서 보니 정교를 받는 불쌍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의 행위로 나의 물결로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을 믿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사실 이 곡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 예배의 주제곡이었다. 화려한 멜로디를 좋아하는 나에게 조금은 시시한 곡이고 어렸을 때에는 "죄, 추한 것" 등의 어휘가 부담스러웠다. 어렸을 때 또 모르고 찬송했던 내용이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모든 가사들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내가 가장 추한 죄인이고 십자가 보혈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감사의 찬송을 할 수밖에...

우육임(집사, 할렐루야 성가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85	한미란	19	청년1부	김규석(6)
2286	장윤원	6	청년1부	김규석(6)
2287	임아라기리	19	외선부	주바이도매(19)
2288	정효신	19	청년1부	정재홍(3)
2289	수혜소	19	외선부	누원(19)
2290	로산	19	외선부	누원(19)
2291	부다현다	19	외선부	
2292	갈데르덴	19	외선부	양순옥(10)
2293	인경일	19	청년1부	이금순(6)
2294	이선화	2	청년2부	최중철(1)
2295	주성일	2	대학부	
2296	한대희	3	대학부	류진희(1)
2297	김정광	6	청년2부	최상기(18)
2298	최영숙	1	청년2부	태일환(1)
2299	문병희	8	청년1부	박성희(1)
2300	이태희	9	고등부	김경환(1)
2301	이정아	19	외선부	김철환(11)
2302	타무르	19	외선부	김철환(11)
2303	알렉	19	외선부	김필라나(14)
2304	아나	19	외선부	김필라나(14)
2305	엘레나정	19	외선부	
2306	김진정	19	청년2부	김진정(19)
2307	박재찬	19	청년1부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